

문화정책 이슈페이퍼

지역 문화예술계가 바라본 청년문제

19호

2022. 11. - 12.

column 칼럼	지역 청년이 바라본 청년문제 최정원 청춘연구소 컬처플러스 대표
issue 이슈 1	부산시립예술단 청년 예술인 육성 프로그램의 시사점 이상현 춤 비평가, 부산시립무용단 운영위원
issue 이슈 2	문화는 청년들의 업(業)이 될 수 있을까 김미양 문화기획자, 작가
issue 이슈 3	지방청년, 멸종위기종이 될 것인가. 김은주 거제섬도 대표
예술+고령화	예술의 옷을 입고 어른의 어른이 되다 배우민 (사)한국예총 경남연합회 사무처장
정책보고서 톨아보기	울산청년예술인을 위한 지원방안 개선에 대한 연구 김수정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연구원
문화정책 뉴스클리핑	2022. 11. - 12.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문화정책 이슈페이퍼

19호 | 2022.11.-12.

이번 19호는 지역에서 활동 중인 예술가들이 생각하는 청년예술가 육성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뤄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더불어 예술 현장의 고령화도 살피며 지역의 청년과 함께 사는 삶을 어떻게 그려나가는 것이 좋을지 모색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Contents

03 column 칼럼

지역 청년이 바라본 청년문제

최정원 청춘연구소 컬처플러스 대표

07 issue 이슈 1

부산시립예술단 청년 예술인 육성 프로그램의 시사점

이상현 춤 비평가, 부산시립무용단 운영위원

10 issue 이슈 2

문화는 청년들의 업(業)이 될 수 있을까

김미양 문화기획자, 작가

13 issue 이슈 3

지방청년, 멸종위기종이 될 것인가.

김은주 거제섬도 대표

16 예술+고령화

예술의 옷을 입고
어른의 어른이 되다

배우민 (사)한국예총 경남연합회 사무처장

19 정책보고서 톨아보기

울산청년예술인을 위한
지원방안 개선에 대한 연구

김수정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연구원

22 문화정책 뉴스클리핑

지역 청년이 바라본 청년문제

최정원

청춘연구소 컬처플러스 대표

#지방분권과 자치

지방분권과 자치를 이야기 해 온 것이 어언 30년이 되어가고 있다. 분권의 핵심인 재정과 행정의 독립은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서울에 대항하는 지역의 대응으로서 권역별 행정통합을 이야기 해왔지만 권역별 메가시티 계획은 논의 단계에서 그쳤다. 인구소멸, 지역균형발전을 이야기하며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하였으나 원도심 공동화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오히려 지역과 지역 간의 갈등 요소가 첨예하게 대립한다. 신공항 이슈는 아직도 뜨거운 감자다.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갤러리 유치권도 문화분권의 도마에 올랐다.

분권은 크게는 수도권과 지역, 작게는 지역 간의 경쟁으로 변질되는 양상이다. 분권의 본질은 지역 간의 편 가르기 또는 경쟁에 있는가? 우리는 정치적 명분과 정책적 실효성만을 따지고 있지 구체적으로 분권이 가져올 미래상을 그려보지 못하고 있다. 제대로 된 담론을 형성하기도 전에 법제화, 제도화하기에 급급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분권의 실익과 명분이 단순히 수도권을 상대로 한 지역의 대응전략 중 하나라는 좁은 시각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면 청년들이 느끼기에는 덩치 큰 지역 정도에 불과하지 않을까?

#지역 청년이 생각하는 지역의 청년문제

지역의 청년들이 느끼는 지역의 가장 큰 청년문제는 무엇인가? 근 10여년 간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강이나 세미나, 워크숍 등을 가면 매번 나오는 이야기가 '없어요', '부족해요' 라는 이야기들이다. 비교 대상은 당연히 수도권이다. 수도권에 비해 부족하거나 부재한 것들을 이야기한다. 대표적으로 나오는 단골메뉴는 일자리와 문화다. 그렇다면 청년은 수도권과 지방의 문화적 차이를 무엇으로부터 느끼는 것일까?

2019년 부산에서 청년들이 많이 오가는 젊음의 거리 서면에 삼정타워가 개관하였다.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건물에 무언가 들어가는 족족 실패하여 점포 임대나 나오기 일쑤였는데 1층의 섹션버거를 기점으로 층마다 다양한 브랜드가 입점하면서 청년들의 취향을 선점하였다. 개관일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청년들이 삼정타워를 찾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핵심은 바로 다양성이다. 다양한 사람들의 취향을 담은 다양한 브랜드는 어떤 사람들이 오든 만족을 선사한다.

서면 외곽의 인접지 전포의 골목거리에는 다양한 카페와 편집샵들이 들어섰다. 폐업한 철물점과 공구상가들의 빈자리를 하나둘 매워갔다. 초창기 사람들이 발걸음이 전혀 없던 곳에 지금은 젊은이들이 넘쳐난다. 임대료가 싼 곳을 찾아 건너편 사잇길까지 확장되었다. 그곳에는 힙한 청년들의 복장과 개성 있는 가게들을 경험할 수 있다. 2017년에는 뉴욕타임스 ‘올해의 세계여행지 52곳’ 중 한곳으로 한국에서 유일하게 전포카페거리를 선정하였다. 전포 카페거리가 수평적 다양성이라면 삼정타워는 수직적 다양성을 담았다.

삼정타워와 전포카페거리를 보면 서울이 생각난다. ‘서울에는 다 있어요!’의 ‘다’는 청년들의 다양한 니즈를 다각도로 만족시켜 줄만큼 다양성과 개성이 넘쳐나는 도시라는 말이다. 다양한 색이 각각 담길 수 있는 파레트 같이 철저히 자기 고유의 색으로 존재하지만 모여 있을 때 그 가치가 더욱 빛난다. 그렇게 도시는 섞이지 않은 채로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곳이 되었을 때 청년들은 그것에서 매력을 느낀다. 지역을 대표하는 특징은 없지만 하나 하나가 모두 개성 있는 곳,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다양한 도시, 모든 것이 허용되는 도시라는 이미지는 각박한 도시에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오히려 ‘자유’를 부여해 준다. 삼정타워와 전포카페거리는 ‘부산안의 서울, 지역안의 수도권’ 같은 문화다양성이 자리잡았다.

#개성과 다양성에 정책 초점 맞추기

수도권이라는 도시의 차별성은 단순히 도시의 인프라에서 오는 걸까? 오히려 다양한 개성들이 모여 지금의 차별성을 만들었다. 문화의 융성은 자유로운 도시의 분위기, 수용성 높은 도시의 이미지로부터 시작되었다.

청년정책의 방향성은 여기에 있다. 수용성 높은 도시, 청년의 개성과 다양성을 지원하는 개방적인 청년정책 말이다. 서울의 인구 절반은 서울 원주민이 아닌 타 지역 사람들이다. 서로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서로 교류를 통해 발전해 온 것이다. 지금의 지역정책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폐쇄적이다. 지방소멸, 인구유출에 대응해 타지역 청년들이 자신들의 지역에 정착하는 것을 돕는 거주정책 같은 것들이 생겨나고, 관계인구에 착안하여 ‘살아보기’ 정책도 생겨났다. 최근 대구에서는 탈향하고 다시 돌아온 귀향청년들을 지원하는 정책도 시행 중이다. 부산에서는 리모트워크라는 정책이 타지역 소재 청년들 중 부산에 근무지가 있는 청년들에게 거주비를 지원해주는 정책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아쉬운 것은 모두 정책의 방향성이 거주민 인구수를 늘리는 데 있다. 정책의 명분상 필요해 보이지만 오히려 지역 간 인구 경쟁을 촉발할 뿐이다. 왜냐하면 유입인구가 수도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인근 지방도시로부터 오기 때문이다.

경남 통영에 있을 때 서울로부터 재미있는 정책 하나를 접하게 되었다. 서울 청년과 지역 청년이 서로 컨소시엄하여 지식, 문화, 기술을 교류하여 해당 지역을 활성화하는데 서울 청년들이 함께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중앙 부처 사업이 아닌 지역이 지역의 예산으로 다른 지역을 지원한

다는 것이 정책적 명분으로서 어떻게 가능한가? 당시 서울은 인구 3분의 1이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 지역이 겪는 어려움에 책임을 느끼고 문제해결에 동참하기 위한 작은 시도라고 하였다. 그 시도를 지역 간 민간 교류를 통해 풀려고 했다는 것은 새로운 행정적 발상이다.

서울은 지역과 달리 높은 인구 밀도로 인해 시민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었다. 청년들에게 서울생활이란 높은 비용을 요구하는 삶일 수밖에 없었고, 한정된 도시 공간에서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들은 가혹한 생활을 버텨내야 했다. 그 해결점은 오히려 수도권 인구 집중을 막고 지역으로 인구가 분산되는 데 있다는 것을 알았고 수도권이 독점하고 있는 지식과 경험, 기술을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최초의 작은 시도라고 생각되었다. 행정이 민간을 지원해 민간 차원에서 서로의 지역 문제를 협력적으로 해결해 보려는 움직임이었기에 더욱 의미가 있었다. 당사자인 청년들의 참여와 교류였기에 더욱 큰 의미가 있다.

#넓은 시야로 청년문제 바라보기

청년문제가 단순히 청년세대의 문제만이 아니듯 지역의 문제는 그 지역 자체만의 문제는 아니다. 얽히고 설킨 복잡한 실타래를 풀어야 하는 숙제인 것이다. 지역 간의 협력이 필요한 이유는 그 실타래가 한 지역에 묶여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재미있지 않은가? 우리 지역의 청년유출 문제가 서울과 수도권에는 또 다른 지역문제를 낳고 있다는 것 말이다. 그렇다면 반대로 지역의 청년유출을 막는 것은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있지만 서울과 수도권과 같이 인구밀도가 높아지는 지역의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기도 하다.

2014년도에 처음 청년문화 활동을 시작했을 무렵 여러 지역에서 비슷한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을 만나 교류하기 위해 전국을 다녔다. 교류를 통해 얻었던 경험과 지식, 영감으로 부산에서 다양한 시도들을 이어갔다. 그 축적된 경험으로 통영에서도 2년간 활동하며 가진 경험들을 나눴다. 울산청년센터의 다양한 청년정책 사업의 심사와 자문을 맡아 울산청년들의 다양한 시도에 힘을 보탤 수 있었다. 울산청년들의 문화적 시도에 많은 부분 부산을 오가며 참고하고 있다는 것도 그 때 알았다. 아직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그 때 교류했던 다양한 청년들의 시도를 참고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교류가 줄어들었을 때도 지역 간 이어진 네트워크 자원은 지역의 한계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교류는 지역이 가진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접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되었다.

지역의 청년문제를 풀어가는 방향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의 청년정책들은 지역 간 협력을 담보하기 보다는 오히려 경쟁을 유발한다. 청년들을 지역 안에 가두기 위해 열심히 울타리를 치는 정책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더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배울 수 있도록 열린 정책들이 필요하다. 부울경의 협력적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정책의 장소적 한계를 돌파할 필요가 있다. 여태껏 지자체의 정책은 해당 지역 내에서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교류를 위해서는 장소적 제한을 부울경 전체로 넓히는 시도가 필요하다. 또한, 일반적으로 중앙 부처에 전국 또는 권역을 대상으로 한 정책지원들이 있었다면 부울경이 협력한 권역 내 청년정책들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는 메가시티 논의나 문화분권과 관련된 논의가 행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오히려 이러한 교류의 주체들을 청년 당사자와 민간으로 옮겨 더 다양한 주체들이 서로가 자유롭게 교류하는 장을 열도록 지원하

고 이를 통해 발전할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지금은 행정중심, 행정 의존적 담론들이 형성될 수밖에 없고, 더 다양한 목소리를 담는 데 한계가 있다. 오히려 그런 지역담론과 교류를 민간에서 시도할 수 있도록 정책사업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 이미 짜여진 판을 벗어나 지역을 새롭게 할 논의들과 소외된 목소리를 담는 기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부울경 간 지역 협력으로 '다양성의 한계' 극복하기

부울경의 협력은 지역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의 한계'를 극복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부울경이란 지역 협력이 단순히 덩치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수용력을 넓히는 시도여야 한다. 또한, 조금 더 열린 태도와 넓은 시야를 가진다면 향후 부울경이라는 권역과 다른 지역 또는 권역과 권역의 교류가 활성화 하는데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다양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지역간 협력사업들도 시도해 볼 수 있다. 교류와 협력속에서 청년들의 시도는 다양성을 갖출 수 있다. 지역이 수도권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만의 다양성을 갖추고, 도시의 수용력을 키울 때 청년문화, 청년예술인들은 자신을 수용해 줄 지역과 역할을 찾아갈 수 있다.

원고를 퇴고하는 과정에서도 작금의 청년문제를 분석하거나 지역의 한계를 정의하는 것에 그치지 않으려 애썼다. 그동안의 경험들을 통해 청년정책의 방향, 청년문화와 지역예술의 발전이 어디로 가야지만 부울경 문화분권과 자치가 의미를 얻을 수 있는지, 청년들의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았다. 물론 부족한 견해일 수도, 한 사람의 단순한 주장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래서 다양한 청년 중 한 명으로서 글을 쓰고자 노력하였다.

끝으로 지역의 한 청년으로서 또 다른 청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 결국에 이런 부분들은 방향이나 방법을 제시해 줄 뿐이지 실제로 그것을 실현하는 것은 청년들의 의지이다. 지역을 바꿔가고자 하는 의지 나아가 지역이 청년들로 인해, 나로 인해 조금씩 바뀔 수 있을 것이란 믿음과 실천이 분권과 자치의 핵심이며 원동력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청년들이 포기하지 않고 미래를 개척해 나갔으면 한다. 결국 미래는 청년들의 편이다.

부산시립예술단 청년 예술인 육성 프로그램의 시사점

이상헌

춤 비평가, 부산시립무용단 운영위원

부산시립예술단(이후 '예술단')은 (재)부산문화회관(이후 '문화회관')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부산 대표 공공 공연단체로, 1962년 시립교향악단(이후 '시향')을 시작으로 72년 시립합창단(이후 '합창단'), 73년 시립무용단(이후 '무용단'), 84년 시립국악관현악단(이후 '국악단'), 98년 시립극단(이후 '극단')을 창단하면서 5개 상임 단체 체제를 완성하였다. 현재 소년소녀합창단과 청소년교향악단을 포함해 7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부산시 출연 문화예술기관 중규모가 큰 두 곳은 (재)부산문화재단(이후 '문화재단')과 문화회관이다. 두 기관의 예산 규모는 300억 원대로 비슷하다. 문화회관 예산의 절반 이상(185억, 22년도)이 시립예술단 운영비이고, 대부분은 인건비로 사용된다. 시립예술단이 부산의 세금을 가장 많이 쓰는 예술 단체임이 분명하다. 시립예술단 운영은 부산시가 문화회관에 위탁하는 방식이다.

두 기관의 설립 목적은 다르다. 문화재단은 '지역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 창작 기반 조성'과 시민을 위한 문화서비스 확대'가 목표이고, 문화회관은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이다. 문화재단은 지원을 통한 지역문화 활성이 주 사업이고, 문화회관은 질 높은 공연예술을 공급하는 것이 주 사업이다. 이렇게 두 기관의 지향점은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으로 '청년 예술인 육성'을 들 수 있다. 예술인 육성 면에서 본다면, 문화재단은 예술가의 창작을 구현할 수 있게 지원하고, 시립예술단은 예비 예술가나 신진 예술가가 더 안정적으로 기성 예술계에 정착할 수 있는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역량을 키워준다.

#부산시립예술단의 청년 예술인 육성 방안

시립예술단은 청년 예술인 육성 프로그램을 오래전부터 운영해 왔다. 시향과 국악단은 지역 청년 예술인 중 협연자를 선정해 무대에 함께했고, 무용단은 객원만이 아니라 비상임 단원을 뽑아 청년 예술인 육성에 한몫을 담당했다. 극단도 객원 단원을 뽑아 공연에 함께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예술인들은 높은 기량의 기성 예술가와 공연하는 기회를 얻고, 최고의 스태프, 기획, 홍보 시스템과 극장을 경험하게 된다. 코로나로 대학교까지 비대면 수업을 했던 시기에 대면 수업을 하지 못했던 청년 예술인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 2019년 시작해 격년제로 개최하는 ‘부산 신진예술 페스티벌’도 만 39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 일종의 청년 예술인 육성 사업이다. 이 사업에 선정된 단체가 다른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된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시립무용단은 매년 비상임단원을 뽑아 공연에 투입하는데, 비상임단원 중에 상임 단원 공채에 선발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지난 8월 공연한 <슈퍼 타이거>는 부산시 ‘신진 청년 예술인 인큐베이팅 및 경력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회관이 맡아 기획, 제작한 작품이다. 애초 39세 이하 부산에 거주하는 국악, 무용 관련학과 졸업예정자, 졸업자 중 60명(무용 20명, 국악 40명)을 선발할 계획이었는데, 1차 공모에서 인원을 채우지 못해 울산·경남까지 지역을 넓혀 재공모를 했지만, 결국 인원을 채우지 못했다. 현재 지역에 남아있는 청년 예술인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수퍼 타이거 Super Tiger>는 석 달의 연습과 공연 기간에 월급으로 사례를 지급해 참가자가 작품에만 집중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었다.



[그림 1] 슈퍼 타이거 공연 장면(출처 : 예술의 초대 22년 11월호)

예술단 청년 예술인 육성 프로그램의 중심은 청소년교향악단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청소년 교향악단 단원은 고등학생부터 만 28세까지인데, 고등학생은 연주 기량에서 오디션을 통과하기 어려운 단원 대부분은 대학 재학생과 졸업생이다. 대학을 졸업하면 시향에 들어갈 것이지 왜 청소년교향악단에 들어가느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향 단원 공모에 전국의 실력자가 몰리기 때문에 대학을 갓 졸업한 연주자가 경쟁을 뚫기가 쉽지 않다. 먼저 청소년교향악단에서 기량과 경력을 쌓고, 시향 단원 공채에 응시 하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교향악단에 들어가면 전문 지휘자를 만날 수 있고, 시향 단원이 멘토가 되어 개별 지도도 받을 수 있다. 청소년교향악단에서 악장으로 활동한 단원이 시향 단원이 된 경우를 보면 청소년교향악단이 수준 높은 연주자를 키우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때 청소년교향악단을 서울처럼 ‘유스 오케스트라(Youth Orchestra)’로 바꾸려는 시도가 있었다. 서울시는 청소년교향악단을 2007년 10월 유스 오케스트라로 개칭하고, 단원을 각 음악 대학 전공 대학생 중 오디션을 통해 선발했다. 안정적인 예산과 전문 시스템 지원으로 청년 예술가를 전문 예술가로 키우려는 의도였다. 부산도 단원 연령을 만 34세로 높이고 체제를 바꾸려고 했다. 여기서 34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남성의 경우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와 유학을 다녀오면, 거의 서른 살이 된다. 이때 비로소 사회로 나가 활동을

시작하기 때문에 만 34세까지라는 나이는 현실을 반영한 중요한 기준이다. 여성 단원도 활동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불리한 면이 없다. 의도는 좋았지만, 이런저런 반대에 부딪혀 좌절되고 말았다.



[그림 2]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사진제공 : 부산시립예술단)

#부산 청년예술인 육성의 중요성

“부산의 청년 예술인을 육성하는 일이 왜 중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반드시 정리해야 하고, 그래야 청년 예술인 육성에 적합한 지원 정책을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다. 부산의 예술 기반은 서울에 비해 약하다. 이유는 많지만, 결정적인 배경은 대한민국의 모든 것이 수도권에 집중할 수밖에 없도록 짜인 사회구조이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관한 성찰이 없으면, 금방 사라지는 단발적이며 단기적인 정책만 나온다. 청년 예술인 육성은 한두 번의 시도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장르를 막론하고 지역 청년 예술인들은 수도권이라는 블랙홀로 빨려들어 가는데, 부산에서 견딜 지지 기반이 약해서이다. 예술로 먹고살 수 있는 기반이 있다면, 이런 현상이 덜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대학에 들어가면서부터 기댈 수 있는 학교 바깥의 시스템이 필요하다. 카페나 편의점 알바를 하지 않고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청년 예술인들이 졸업 후에도 부산에 남아 있을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축구에는 U23(23세 이하)부터 초등학교 리그인 U12까지 세분되어 있다. 기량이 바탕이 되어야 하고, 연령에 따라 필요한 기량을 조금씩 달리하면서 발전시켜야 하는 점에서 예술과 스포츠가 비슷하다. 사회에 발을 갖 디딘 신진 예술가나, 대학생 예비 예술인을 위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육성 프로그램을 짜야 한다. 예를 들자면, 유스 오케스트라, 유스 무용단 등이 그것이다. ‘유스’ 프로그램으로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청년 예술인 육성 계획을 실현할 수 있다.

몇 년 후면 오페라하우스가 완공되고 국제아트센터까지 개관한다. 부산 공연계의 준비가 절실한 시기이다. 그 준비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는 청년 예술인을 키우는 일이다. 물론 지금까지 청년 예술인 육성을 위한 많은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부산의 청년 예술인이 성장했다는 증거가 뚜렷한 경우는 흔치 않았다. 반면 시립예술단의 청년 예술인 육성 프로그램은 성과가 비교적 뚜렷하다. 부산 청년 예술인들에게 절실한 예술로 먹고살면서 경력을 쌓고 기량을 키울 기회를 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부산 공연예술계의 자생적 선순환 구조가 튼튼하다고 아직 말할 수는 없지만, 시립예술단의 객원과 협주, 협연 프로그램, 청소년교향악단 같은 희망의 씨앗이 꾸준히 자라고 있다.

문화는 청년들의 업(業)이 될 수 있을까

김미양
문화기획자, 작가

#1. 문화가 밥 먹여주나요.

“선생님은 본업이 뭐예요? 지금 이거는 그냥 취미로 하시는 일일 테고. 돈은 따로 벌고 계실 거 아니에요, 맞죠?”

“.....”

몇 달 전, 부산진구의 한 생활문화공간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의 일이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생활문화시설 인문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통해 인문전문가로서 사례비를 받으며 5개월 간 프로그램을 이끌어오고 있었는데, ‘취미 아니냐’는 물음과 맞닥뜨리니 순간 당황스러웠다.

내게 질문을 한 이는 나와 비슷한 또래의 청년이었다. 몇 년간 직장생활을 하다 잠시 휴식기를 택한 그는 부산 곳곳의 문화프로그램을 찾아다니며 시간을 보내는 중이었다. 부산광역시, 부산문화재단, 부산진문화재단,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부산청년센터, 청년작당소, 청년월동기지 닛트플레이스 등 등 워낙 많은 기관과 공간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 그것들만 찾아다녀도 그의 하루일과는 24시간이 모자랐다.

현재 부산 내 청년대상 문화예술프로그램은 대부분 무료로 운영된다. 어떤 취지에서 무슨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어느 정도 규모의 사업인지 참가자 입장에선 속사정을 일일이 다 파악하기가 어렵다. 그는 아마도 향유자 본인이 무료로 여가생활을 누리고 있으니, 프로그램을 진행자들 또한 재능기부 내지는 무보수의 취미생활을 즐기고 있는 거라 생각한 듯했다.

“저도 사실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생계유지가 안 될 것 같아서요.....”

그의 말에 나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못했다.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나에게 사실 이번 인문프로그램 운영은 최근 1년 중 가장 큰 보수를 가져다주는 일이었다. 이런 식으로 경력을 쌓아간다면 앞으로는 정말 좋아하는 일로 밥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쌓여가던 중이었다. 그러나 희박한 희망이었다. ‘굶어죽지는 않으니까 도전하세요!’라는 말로 눈앞의 청년을 끌어들이기에는 아직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기 때문이다.

#2. 향유자에서 창작자로 변화는 했지만

나는 외식조리학과를 졸업해 현재는 문화기획자이자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문화예술 계통의 전공자가 아닌데도 지금의 삶을 택하게 된 데에는 크게 두 가지 계기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부산문화재단의 청년예술가 창작활동지원제도 중의 하나인 ‘청년예술가 생애 첫 창작활동’ 지원이다. 이 지원을 통해 2021년에 첫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

2021년 초, ‘청년예술가 생애 첫 창작활동’ 지원 사업 공모 소식을 접했을 때 머릿속에 처음 든 생각은 ‘내가 청년예술가인가?’라는 의문이었다. 몇 년간 글쓰기 모임에 참여하고 또 자발적으로 운영하기도 하며 글을 써오고 있었지만, 스스로를 ‘예술가’로 여겨본 적은 없었다. 해당 분야를 전공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사업일 거라 지레짐작하고 포기하려 하기도 했다. 하지만 나의 걱정은 기우였다 부산문화재단이 생각하는 ‘청년예술가’의 범주가 내 예상보다 훨씬 넓게 열려있음을, 나는 이 사업에 선정되며 비로소 확인할 수 있었다.

책을 읽는 독자에서 책을 쓰는 작가로, 문화예술 향유자에서 문화예술 창작자로의 변화를 겪으며 나는 한 차례 성장했다. 이걸 책을 얼마나 잘 썼는지와는 별개의 문제였다. 취미로 책을 읽고 글을 쓰던 청년이 자신의 이름으로 된 책을 발간하고 인세를 받는 경험. 이 사소한 경험이 내 삶의 궤도를 완전히 틀어놓았다.

그 후로 1년이 지나 다시 공모사업 시기가 되자, 주변 청년들에게 지원 사업에 신청해보라며 등을 떠밀었다. 그러나 막상 도전하는 사람들이 없었다. 나는 수혜를 입은 입장이었으나, 사람들에게 권하기 위해 돌이켜보니 아쉬운 점도 눈에 보였다. 가장 큰 것은 홍보의 문제. ‘청년예술가 생애 첫 창작활동’ 지원 사업 자체를 아는 청년들이 거의 없다. 내가 지원했던 2021년엔 경쟁률이 2대 1도 되지 않았다. 물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알 수 없는 씁쓸한 수치다. 아마 정보를 알았더라도 나처럼 ‘예술가’의 정의 앞에 망설이며 포기하는 경우도 많지 않을까.

#3. ‘맛’만 보여주지 말고 ‘밥’을 주세요.

나는 부산문화재단의 수혜를 받아 청년예술가로서 활동을 시작한 케이스지만, 나를 포함해 많은 청년들이 문화예술로 밥 벌어 먹고 살기 위해선 앞서 말한 ‘홍보’외에도 많은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많은 청년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것이 ‘진입 장벽 낮추기’이다. 공모사업 정보를 접한 이후, 지원서 작성 단계에 들어가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다. 공모 취지에 맞게 자신의 기획의도를 설명하고 상세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문자로 정리해 설득시키는 일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서류 작성 자체를 힘들어하기도 한다. 부산문화재단의 ‘아이컨택’ 제도나 부산시의 ‘청년이음도서관’ 등을 활용해 지원서 작성법에 관한 도움을 얻을 수 있으면 어떨까. 또한 처음 공모에 도전하는 청년과 이미 지원 사업을 경험해본 청년 사이의 갭 차이가 존재하므로, 공모의 규모나 사업의 난이도를 단계별로 세분화하여 어떤 청년이든 부담 없이 도전할 수 있는 사업을 늘려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부산문화재단의 지원 사업은 아직 문화기획보다는 기초예술분야에 치중되어 있는 듯하다. 기존에 ‘실패해도 괜찮아’라는 문구와 함께 홍보되었던 ‘청년 UNIVERSITY’가 청년문화기획자의 진입장벽

을 낮추고 실험적인 도전을 응원하는 사업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2022년에는 청년 기획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아 아쉬웠다. 반면,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된 영도에서는 ‘기획자의 집’을 포함해 문화예술기획자를 양성하고 다양한 실험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문화기획은 문화예술창작자와 향유자 사이를 매개하는 판을 깔아주는 일이다. 향유자를 위한 무료 프로그램만 운영해서는 자생력을 높일 수 없다. 문화예술이 성장하려면 기획의 역할이 중요하다. 부산문화재단도 기초예술분야 예술가 육성과 함께 문화기획자 육성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돈’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 삶의 전환점에서 취업 압박에 시달리는 청년세대에게 생계는 절박한 문제다. 부산문화재단의 ‘청년예술가 생애 첫 창작활동’ 지원사업과 달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청년예술가 생애 첫 지원’ 사업은 본인 사례비 책정이 가능하다. 내가 쓴 글에, 내가 그린 그림에, 내가 짠 기획에 ‘사례비’를 책정할 수 있다는 것은 큰 변화를 가져온다. 문화예술을 계속하기 위해 별도의 돈벌이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어째서 당연한 일이 되어야 할까. 청년들이 문화예술의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부산문화재단이 더 고민해주길 바란다. 언젠가, ‘이건 취미로 하시는 거죠?’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아니요? 이건 제 업인 걸요!’라고 웃으며 말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해본다.

지방청년, 멸종위기종이 될 것인가.

김은주
거제섬도 대표

청년이란 무엇일까? 청년의 사전적 정의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 어린이에서 성인으로 전환하는 시기를 말한다. 성인으로 전환되는 시기의 위태로워 보이는 이들에게 주목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하게 이야기하는 요즘, 그중에서도 지방에 거주하는 청년은 거의 멸종위기종과 유사하게 취급받는다. 개체수를 늘리기 위한 노력, 그들의 본성을 찾아주려는 활동, 야생으로의 복귀 전 유사한 환경을 경험하는 연습 등은 정말 효용성이 있는 것일까, 지방 청년들은 지금의 행정이 만든 정책적 방법론을 통해서 멸종하지 않을 수 있을까.

#청년을 위한 공간에 청년이 없다.

2022년 12월 3일, 경남 청년센터의 운영이 중단되었다. 그 이유는 운영비는 많이 드나, 저조한 이용실적, 시와 군의 청년센터와의 역할이 중복된다는 이유였다. 청년센터는 운영이 중단되지만 2022년 812억보다 215억 원이 증액된 1,027억 원을 편성(26.6% 증액)하여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청년 지원 정책을 마련한다고 한다. 예산은 증액되었지만, 센터는 문을 닫는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 혹은 경남도청의 행사는 대부분 창원에 집중되어 있다. 창원이라는 도시가 다른 도시와의 연결성, 이동의 거리도 하나의 이유일 것이며, 관의 특성상 모두를 아우르는 일을 해야 한다는 설정값 때문으로도 여겨진다. 창원 인근의 양산, 김해와는 다르게 남해, 거제에 있는 이들은 청년센터를 이용하는 일은 거의 없다. 공간을 이용하기 위해서 왕복 3시간이 넘는 거리 운전해야 한다. 특별한 행사에만 창원 밖의 청년들은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 공간을 방문했을 확률이 높다. 올해 경남도민의 집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겠냐는 진흥원과 경상남도의 질문에 다른 공간들과 같이 대관 등의 목적으로만 운영이 된다면 이곳은 경남도민의 집이 아니라 창원시민의 집일뿐이라고 답변했다. 경남도민들과 외부인이 창원을 찾는 이유는 기관, 기업과의 미팅을 위한 출장의 이유가 크다. 비즈니스 목적의 출장 중에 공간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경남 청년들이 창원을 찾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공간의 목적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활용할 수 있었을 것이며, 성과라는 것을 낼 수 있었을지 모른다. 하드웨어를 만들기 전에 정말 그 공간을 적절하게 이용할 대

상자를 고민하고, 그것에 맞게 만들어져야 한다. 공간은 사람이 이용해야 힘과 성격을 가지게 된다. 공적 공간뿐만 아니라 지역 정책 역시 상업적인 방면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공간과 내용을 소비할 고객층을 세분화하고, 적절한 표적화와 홍보가 필요하다.

#거제시의 청년 기획가로 살아가기

거제시는 2020년 청년친화도시로 선정되면서 다양한 청년정책과 사업을 만들었다. 이 지점에서 아쉬운 것은 정책의 수립을 진행할 때 내부 청년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였다기보다는 청년친화도시로 선정되어 정책자금만 내려왔고, 사업을 해야만 하는 환경에 내몰려 진행한 느낌이다. 이미 만들어진 유사한 사업을 거제도 내에서 그대로 진행했다. 사업을 참여하였을 당시(섬도는 민간청년활동공간과 거제 청년 한 달 살기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제대로 된 행정 서류 양식이 만들어져 있지 않았다. 참여한 사업 중간마다 예정되어 있지 않은 보고 자료를 당연하게 요청하였다. 문서 역시 직접 만들어서 전달할 것을 일반적으로 전달 받았다. 지방의 행정이 민간과 어떻게 일했는지 적나라하게 느꼈다. 당신들을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다는 말은 잊히지 않는다. 거제시 변화의 흐름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는 행정의 하청업체로 끝났다. 어떤 일이든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다. 사람이 하는 일은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조율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배려는 필수적이다. 행정에서 만든 정책의 성과는 담당자의 태도에 따라 달라진다. 행정은 민간의 참여가 필요하고, 민간은 행정의 도움이 필요하다. 공무원과 시민이기 전에 같은 동네에 사는 주민이 아닌가. 시민이 없으면 공무원도 없다. 지방 소멸은 먼 이야기가 아니다. 동네에 사람이 떠나면 세금도 줄어 들고 공무원도 결국 멸종한다. 우리는 같은 생태계 구조에 있다.

관에서는 여러 가지 요청을 해온다. 특히 홍보 관련 자료나 영상 촬영 요청이 대표적이다. 거제도라는 공간에서 우리들은 이렇게 잘 지원받으면서 살아남았어요 를 지역의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홍보하는 것인데, 촬영을 진행하면서 비용 포함 다른 지원은 없다. 10분 내외의 영상을 만들기 위해 거의 하루 혹은 반나절 촬영을 진행한다. 그리고 지방 미디어를 통해서 나를 목격한 연락을 받는데, 그럴 때마다 얼굴이 붉어진다. 그래도 참여하는 이유는 담당자의 일을 줄여주고 싶은 것, 언젠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일이 생길 거라는 두 가지 마음으로 참여한다. 정책을 수립하기 전에 의견을 전달하는 자리에도 참여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 경우는 참여비가 책정되어 있다. 패널로 참석하게 될 경우 길게는 10분 정도 의견을 말할 수 있다. 몇 시간을 운전하여 도착하고, 대기한 뒤 겨우 몇 마디를 하는 것이 정말 정책 수립의 방향성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 의견을 전달해도 반영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니 회의적인 입장이다. 이런 아쉬운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것은 약속의 문제이다. 정책을 실행함에 있어 간극이 크며, 쉽게 관계자들을 잘라낸다. 필요에 의해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경험은 행정이 수립한 정책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된다.

청년정책에 걸쳐 말하는 것은 지방 청년 작가들은 더욱 소수의 그룹으로서 정책적 혜택의 사례에서 더 멀어져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다. 보편적 청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지방 청년 창작자는 아직 차례도 오지 않은 기분이다. 거제시의 경우 문화예술과는 많은 지원을 핵심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내부 청년 작가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조차 힘들다. 또한 근본적인 의문이긴 하나 작가의 기준은 무엇일까. 지방에서 활동하는 지금, 어려웠던 그 경계를 개인적으로 다시 정의하는 일은 더 어려워졌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청년 사업 공모에 참여한 적은 없다. 초기에는 사업자등록이 3년이 넘지 않아서 참여할 수 없었고, 이후에는 사업의 단위와 필요도를 고려하니 참여할 기회가 없었다. 지역에서 보고 싶은 풍경을 보기 위해 노력 중이다. 없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움직였다. 절실하면 정책과 지원을 넘어서 방법을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직접 경험하면서 알 수 있었다. (그 와중에도 행정적 절차는 시간이 오래 걸렸다.) 필요한 자원이 다 되었을 때, 적절한 단계를 통한 지원은 너무 늦다. 지금과 앞으로의 시간은 과거와는 빗대기 힘들 정도로 아주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 홍보가 필요할 때, 홍보를 해주는 것, 관련 프로젝트의 성장 가능성이 있다면 그를 위한 행정적 조례 및 발판을 빠르게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관내의 개인이 스스로 튀어낸 싹의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 우리가 설계한 사업이 아니니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태도가 아니라, 공모 시기를 기다리고, 공모 내용에 따라서 하고 싶은 일을 잘라 내거나 구겨 넣는 일은 없어야 한다. 앞으로는 넓은 의미의 지원보다는 좁은 의미의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제주도의 뿔소라가 동해까지 올라갔다고 한다. 자신에게 맞는 환경을 찾아서 본능적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적절한 환경이 아니라면 맞는 곳을 찾아 떠나는 것이 섭리이다. 사람도 자연의 일부인데, 그 법칙이 당연하게 적용되지 않겠는가.

#청년의 다양한 실패를 응원하자

청년 그룹의 다양한 실패를 경남문화예술진흥원과 경상남도가 도와야 한다. 행정이 임의로 지정하는 것이 아닌 추경 사업의 성격으로 다양한 파일럿을 지원한다면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것이다. 그것 자체가 그들의 지방 청년들의 중요한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다. 직접 설계한 파일럿 사업을 통해 성장하고, 경험을 쌓는 성취의 순간이 필요하다. 행정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지만, 독창적인 시도들을 홍보하고, 지원하는 용기를 내야 한다. 개인 사업자인 청년들이 다른 기관에 협조를 구해야 할 때, 든든한 공적 보증인이 되어주어야 한다. 청년들은 만들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원과 투자는 다르다. 사후에 따르는 책임도 다르다. 공적자금을 통한 성장은 한계가 있다. 상업적 행위를 전적으로 지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원을 통해 인상적인 포트폴리오를 쌓은 다음, 행위를 상업화하고, 소비되는 형태로 가공하여 정기적인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 문화예술의 영역에서는 정말 어려운 일이다. 비이성적이며 추상적인 가치를 현실의 가격으로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붕 떠있는 것에 적절한 중력을 더하는 일, 구름 같은 문화에 현실의 무게 추를 대입하여 수평을 맞춰야 한다. 적당한 무게를 유지하며 상업적 행위로 영리하게 치환한다면 지방에서 지금의 현실과 미래에 살아남게 될 것이다.

예술의 옷을 입고 어른의 어른이 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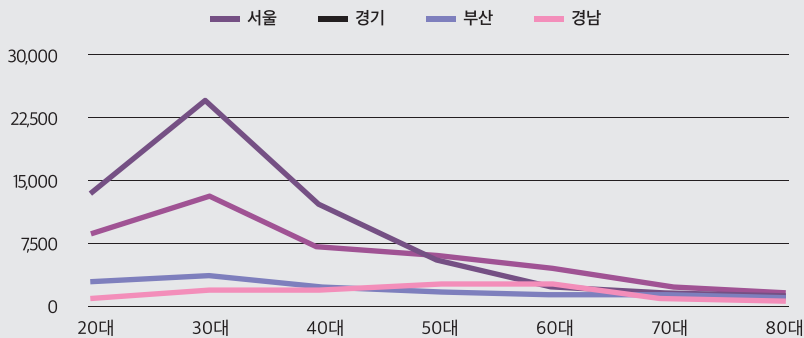
배우민

(사)한국예총 경남연합회 사무처장

보건복지부 자료(2022년 8월)에 의하면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둘 다 없는 시군구는 전국 16개에 달하고 한다. 반면 서울 강남구에는 산부인과 33개 소아과 57개(합계 105개)가 운영중이다. 지방소멸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중의 하나이다. 예술인들이라고 사회 전반적인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 증명 현황을 살펴보니 연령대별로 조사가 되어있다. 예술인의 고령화 문제를 다루고자 분포도를 가만히 보고있자니 이것을 고령화라고 부르는게 맞는건가 하는 원론적인 질문이 든다. 왜냐하면 고령의 예술인들이 많아졌기 보다는 20대, 30대 예술인들이 전부 수도권에 있다 것이 예술인 고령화의 근본적인 이유로 보인다. 연령대가 높은 예술인이 많아서 고령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층이 특정 지역 한 곳에 모여 있어서 상대적으로 고령화가 된다는 이야기이다.

전국 예술인 수 상위4개 지역 연령별 예술활동 증명 현황

(2022년 12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서울	13,637	23,919	10,708	4,579	2,577	1,318	517
경기	7,819	11,783	6,954	4,507	3,148	1,214	403
부산	1,519	2,043	1,331	1,404	1,502	818	265
경남	836	1,223	1,208	1,881	1,934	682	154

젊은 예술가들이 왜 수도권에 모여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굳이 파헤치지 않아도 될듯하다. 경남의 어느 한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공연 중 자랑거리를 늘어놓았는데 졸업생들을 서울의 유명대학으로 배출했다는 것이다. 이 말에 단원들도, 관객들도 박수를 치고 뿌듯해 한다. 예술단체 운영의 모범사례이며 유능한 인적자원을 배출하는 최고의 업적이다. 그렇기에 이 부분을 문제삼는 것은 결말이 공허한 논쟁이다.

나이가 든 것을 탓하지 말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고령화라는 단어에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부분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앞서 설명한 예술활동증명 연령대별 분포도에서 보다시피 청년층의 인구 밀집 때문에 고령이 눈에 보이게 된 것이지 고령층이 증가하거나 다른 요인이 발생해서 고령화가 된 것은 아니다. 지역예술가들이 자신의 지역을 묵묵히 지키며 나이가 든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기엔 서럽지 않은가?

예술은 자존감을 확보하는 가장 고상한 행위

‘교직에서 은퇴 후 서예가의 길을 걷는다.’ 혹은 ‘임원으로 퇴직하고 그림을 그린다’, ‘요즘 글씨요 곧 시집이 나옵니다.’라고 하는 근황소개를 듣는다. 고령화 시대 새로운 삶을 찾는 여러 방법 중에 예술을 선택한 이들의 자기소개이다. 이런 소개는 여러 가지 의미가 느껴진다. 굳이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저는 고상합니다. 생각이 깊고 창조적 이예요. 돈에 집착하지 않고 생활에 여유가 넘칩니다.’ 라고 하는 속마음이 느껴진다. 난잡하게 절절히 설명하지 않고 간단하게 소개하는 것. 고령화 예술이 생성되는 여러 경로중의 하나이다.

삶을 어느 정도 경험하고 인생에 무엇이 소중한가 몸소 깨닫는 나이가 되면 욕심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자신이 무언가를 남기거나 이루고 싶어한다. 늙어가는 것의 의미는 죽음을 향해 간다는 것이니 그것에 반항하는 심리로 자신 내면에 새로운 것을 찾아서 그것을 생산하고 키워나간다. 예술은 삶을 명확하게 하고 죽음에 반대하며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시선을 돌리게 한다. 이것이 고령의 생애 예술이 갖는 의미이다.

고령화된 예술단체, 청년을 고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서부 경남의 어느 행사장에서 미술관련 활동하는 예술단체장을 만났다. 자신이 회장이며 막내라고 말씀하신다. 올해로 70세. 회원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공모사업에는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냐고 조언을 요청한다. 순간 공모사업 이후에 진행되는 여러 가지 업무들이 생각이 났다. 사업계획서부터 e나라도움까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라고 고민하다가 “언제 한 번 연락주세요” 라는 말로 얼버무렸다. 누구나 예술을 할 수 있고 관련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식당에 들어가 키오스크 앞서 멀뚱히 보고만 있는 어느 할아버지처럼 고령화 된 예술가들은 공고문을 확인하는 것부터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저는 오히려 e나라도움이 편해요 딱딱딱 하면 되잖아요’ 20대 기획자가 한 말이다. e나라도움이 만 들어지는 초창기가 떠올랐다. 누가 왜 이런 것을 만들었냐며 너도 나도 불평불만을 이야기하였다.

시스템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는 이도 있었고 사업담당자는 자고 일어나니 메뉴 버튼이 달라져 난처해 하기도 했다. 그런데 사업 처음부터 e나라도움으로 시작한 20대 기획자는 예전의 정산방식에 대한 설명에 당황에 한다. 그냥 e나라도움으로 하면 안되냐고 물어본다. 여기서 고령화된 예술단체의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 청년으로 이루어진 문화매개자를 양육하고 활용하는 것이다. 대신 그에 대한 확실한 고용체계가 따라야 한다. 그렇다면 일자리 창출과 예술단체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예술의 옷을 입고 어른의 어른이 되다

어른이 되어 예술을 깊이 받아들이고 고민하는 것은 돈의 문제를 넘어서 정신적 만족을 위해서 끊임 없이 노력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어른들이 모두가 예술가라면 얼마나 품위 있고 고차원적인 사회가 될 것인가? 고령의 예술이 어른을 어른답게 만들고 우리 사회의 품격을 높인다는 결론에 다다른다면 그리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젊은 사람은 예술의 옷을 입은 어른을 존대하고 어른은 끊임없이 예술적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그런 이상적인 사회를 우리는 즐겁게 맞이해야 할 것이다.

울산청년예술인을 위한 지원방안 개선에 대한 연구¹

김수정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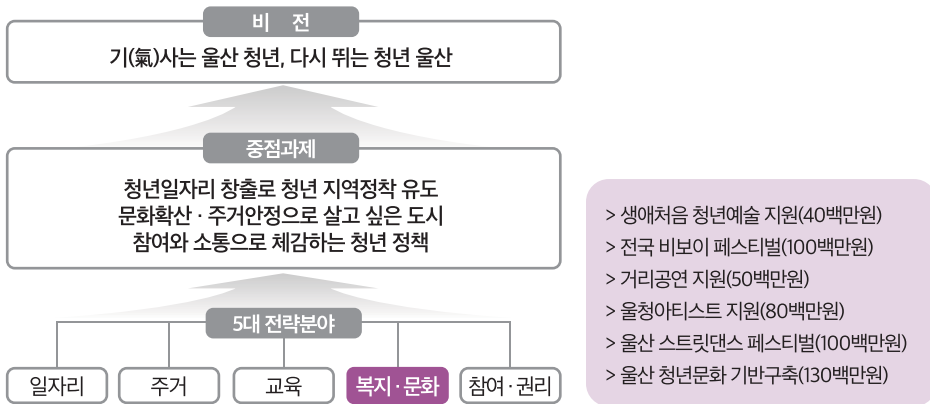
수도권은 예술인, 청년예술인, 예술단체 등에 대한 지원금이 지역에 비해 상당하고, 문화인프라 영역에 있어서도 지역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로 인한 지역 청년예술인 유출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각 지역에서는 해당 문제를 인식하고 지역 청년예술인을 육성 및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지혜를 모으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울산연구원은 울산지역 청년예술인에 대한 기존 지원방식을 파악함으로써 울산지역 청년예술인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울산 청년문화예술인을 위한 지원방안 개선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지역 청년예술인에 대한 지원으로 청년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자생력을 갖춰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정책보고서 톨아보기 코너에서는 해당 연구의 주요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울산청년예술가 기살리기

• 울산 청년정책 시행계획 발표

- > 울산은 2020년 2월, 울산광역시 청년정책 시행계획(울산청년 기살리기)를 발표함. 정책참여, 일자리, 생활안정, 문화생활 보장, 주거지원 등과 같은 영역에서 청년 대상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함.
- > 청년예술인 대상 직접 사업은 문화기반 조성, 예술활동지원 3가지로 설정하였으며, 2022년 올 해에는 직접 사업을 6가지로 다양화하였음

• 2022년 기준, 5대전략 분야 “복지·문화” 중 청년예술인 지원 관련 사업



1 2020년 12월, 울산연구원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를 중심으로 발췌, 요약하였으며 일부 2022년 자료를 활용함

#울산 청년예술인, “우리는 00이 필요하다”

• 울산 청년예술인들이 바라는 것²

> 지원사업의 행정과 정산 간소화

지원사업 참여 시 제출하는
서류들이 많아 복잡하다 **50.8%**



지원사업 참여에 필요한 서류의
복잡성에는 문제가 없다 **11.9%**

정산 방식이 어렵다 **52.3%**



정산에 어려움이 없는 편이다 **14.9%**

> 예술활동을 위한 장기적인 지원

청년예술인을 위한 단기지원
사업은 문제가 있다 **32.3%**



청년예술인 대상 단기지원
사업도 괜찮다. **21.8%**

> 안정적인 예술활동 보장

청년예술인을 위한 단기지원
사업은 문제가 있다 **32.3%**



청년예술인 대상 단기지원
사업도 괜찮다. **21.8%**

소액지원방식에 대해
부정적이다 **53%**



정산에 어려움이 없는 편이다 **15.2%**



예술활동을 통한 월소득 200만원 이하

80.6%

> 예술지원 장르 다양화

지원장르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4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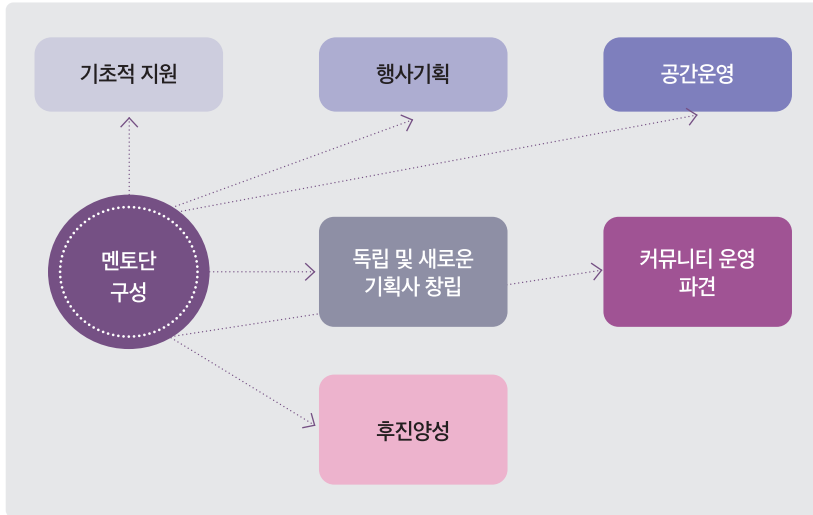


지원장르 다양성에는
문제가 없는 편이다. **18.1%**

2 2020년 7월 한 달간 진행한 20세 이상 30세 이하 울산 거주 남녀 청년예술인 134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구성

#울산 청년예술가의 활동 기회 보장을 위해서는?

① 단계적, 전략적 지원



> 단기적, 소모적 지원에서 탈피하여 단계적 장기지원으로 청년예술인 육성방안 고도화, 지역 청년 예술인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장르별/단계별 멘토단 운영

② 지역산업체와의 연계

- > 지역소재 기업과 메세나 협약 체결로 청년예술인 파견 등 활동 기회 보장
- > 기업 내 노동자 대상 문화예술 지원
- > 기업의 사회공헌, 메세나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등의 조례 제정

③ 지원사업 다양성 제고

- > 실험적, 융합적 문화예술 분야로 지원사업 장르 확대
- > 시민투표를 통한 심사제, 공모 참가 단체 상호 심사제 실시 등으로 심사방법 다각화
- > 타지역 청년예술인의 울산지역 일정기간 거주 및 활동 지원, 울산출신 타지역 청년예술인 지원으로 네트워킹 거점 역할 부여

④ 디지털 교육 지원

- >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활용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교육 지원
- > 청년예술가 - 인문학자 - 엔지니어 정보 교류를 위한 디지털 문화예술 허브 구축으로 융합 콘텐츠 제작 기반 마련

문화정책 뉴스클리핑

2022. 11. ~ 12.

문화체육관광부

- **민관의 뛰어난 공공저작물 활용사례 선보인 다(11.18)**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한국문화정보원(원장 홍희경)과 함께 11월 18일(금) 서울산업진흥원(SBA홀)에서 공공저작물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과 담당자들을 포상하고, 공공저작물 공유 활성화를 위한 포럼을 진행했다.

- **예술을 통해 가치를 창출한 예술기업 단체 6곳 시상(12.2)**

문체부는 12월 2일(금), 수림문화재단 김희수아트센터에서 예술경영지원센터(대표 문영호)가 주관하고, 수림문화재단(이사장 최규학)이 후원하는 '2022 예술경영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 **확장 가상세계, 대체 불가 토큰 환경에서의 저작권을 논하다(12.2)**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최병구)와 함께 12월 2일(금) 오후 2시, 서울스퀘어 빌딩에서 '확장 가상세계(메타버스), 대체 불가 토큰(NFT) 저작권 쟁점과 산업 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

- **예술활동증명 장르 추가한다(12.9)**

문체부는 스트리트댄스, 웹툰 등 최근 한국문화(케이컬처)의 주요장르이거나 비대면 온라인 활동 증가로 급성장하고 있는 예술 분야의 예술활동증명 신청을 활성화하고, 그 심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 예술활동증명 장르를 추가한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아르코웍진(A SQUARE) 창간(11.7)**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박종관, 이하 예술위)는 11월 7일, 예술 현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현장 이슈들을 바라보는 담론을 담기 위해 아르코웍진(A SQUARE)을 발간했다.

- **예술위, 예술 데이터 활용한 사업 아이디어 발굴부터 서비스 개발까지, 원스톱 지원 나선다(11.10)**

예술위는 데이터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예술현장 디지털 활용역량 및 기반 강화에 앞장서며 새로운 예술생태계 지원에 나섰다.

- **“재판정에 선 [근대] 법” 세대 간 기후범죄 재판소(CICC)가 서울 문화비축기지의 석유탱크 안에 세워진다(11.16)**

예술위 국제예술공동기금사업 『2021-2022 한국-네덜란드 교류 협력 프로그램』으로 기획, 진행된 쇼케이스 <세대 간 기후범죄 재판소(CICC): 재판정에 선 법(The Law on Trial)>을 11월 18일부터 12월 4일까지 마포 문화비축기지 T4에서 개최했다.

- **“세상을 바꾸는 예술, 예술을 이끄는 후원” <2022 문화예술후원인의 밤> 성황리에 막내려(12.5)**

예술위는 12월 2일(금) 오후 5시 한강 세빛섬에서 <2022 문화예술후원인의 밤>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문화예술 후원기업과 후원자, 수혜 예술단체 등 주요 관계자 180여 명이 참석했다.화에 앞장서며 새로운 예술생태계 지원에 나섰다.

부산문화재단

- 기후위기에 대해 셰프들이 전하는 이야기 <미래의 식탁: 기대어 잇든> 프로젝트(11.18)
부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미연, 이하 재단)은 ‘메세나 활성화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미래의 식탁: 기대어 잇든》을 오는 11월 26일(토)부터 27일(일)까지 영도구 봉래동 봉산마을회관에서 개최했다.
- “부산문화의 분권적 체계를 상상하다”(11.30)
재단은 12월 6일(화) 오후 3시 한성1918 청자홀(부산 중구)에서 [문화분권-문화자치 상상토크 3 “부산문화, 새로운 질서를 찾다”]를 개최했다. 이번 상상토크는 부산지역 내 문화영역의 분권적 협력을 모색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 부산문화예술지원사업, 2023년도 예산 증액 확정(12.9)
부산시의 내년도 예산이 결정됨에 따라 지난 8년간 제자리였던 부산문화예술지원사업의 예산이 20억 증액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산문화재단과 리유 펍블릭의 인적 교류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

- 진주 독립서점 ‘보틀북스’ 문체부 장관 표창 (11.11)
경남문화예술진흥원(원장 김영덕, 이하 진흥원)은 <2022 지역서점 및 출판문화 활성화 사업> 선정 단체인 보틀북스(대표 채도운)가 11월 11일 서점의 날을 맞아,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진행된 제6회 서점의 날 기념식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 경남도, 지역음악축제 ‘뮤지시스 페스티벌’ 개최(11.23)
경상남도과 진흥원은 경남 뮤지션들의 음악 축제인 ‘2022 경남음악창작소 뮤지시스 페스티벌’을 11월 26일 경남도민의집·옛 도지사관사에서 개최했다.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정책세미나 ‘문화예술 창업, 성공 가능성을 묻다’(12.9)
진흥원은 12월 13일 화요일 오후 2시 경남 콘텐츠코리아랩 중앙홀에서 ‘문화예술 창업, 성공 가능성을 묻다’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서울문화재단

- **기후위기 대응방안 모색 - 서울문화예술포럼 개최(11.17)**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이하 재단)은 “기후위기와 문화예술”을 주제로 제2회 서울 문화예술포럼을 11월 29일(화) 오후 3시에 청년예술청에서 개최했다.

- **대학로에서 새로 시작하는 문화예술 약자와의 동행(11.21)**

재단은 대학로에서 새로 시작하는 서울장애 예술창작센터(구.잠실창작스튜디오)의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이야기하는 기념식 <갈이 잇는 길>을 11월 22일(화) 개최하고, 관련 전시를 12월 4일(일)까지 진행했다.

- **서울문화재단, ‘원로예술지원’ 신설, 5일 공모 접수 개시(12.5)**

재단은 12월 5일(월)부터 22일(목)까지 만60세 이상 원로예술인의 지속가능한 예술창작 환경 조성을 위한 ‘2023 원로예술지원’ 공모를 실시한다.

인천문화재단

-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역문화예술 자원조사 진행(11.3)**

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종구, 이하 재단)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인천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운영하는 단체 및 예술교육자 정보를 수집한다. 수집한 정보는 지역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실행하고자 하는 담당자 또는 기획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 **시민참여형 예술프로그램 10년의 발자취를 조명하는 아카이브전시 <10년의 기록, 굿바이 인천왈츠> 개최(11.25)**

재단은 인천왈츠 1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자발적인 시민문화활동의 성과를 공유하는 아카이브전시 <10년의 기록, 굿바이 인천왈츠>를 12월 2일(금)부터 12월 10일(토)까지 인천생활문화센터 칠통마당에서 개최했다.

- **인천문화재단, 창립 18주년 기념식 및 CI 개편 선포식 진행(12.8)**

재단은 12월 8일 11시 인천광역시의회 허식 의장을 비롯한 인천 문화예술계의 주요 인사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하버파크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창립 18주년 기념식 및 CI 개편 선포식을 열었다.

전남문화재단

- **전남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작은 학교 살리기 큰 역할'(11.21)**

전남문화재단(대표 김선출)이 올해 처음 실시한 '농산어촌 학교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폐교위기에 몰린 도내 작은학교 살리기 운동에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제주문화예술재단

-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X전주 교류전 <이음과 닿음> 개최(12.5)**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은 전주 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과 함께 "제주X전주 교류전 <이음과 닿음>"을 12월 21일까지 제주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에서 진행한다.

- **2022 제주문화예술교육 성과공유팝업 운영(12.11)**

재단은 12월 11일, 일상 속 예술교육의 가치를 확산해나가기 위해 도민들을 대상으로 <제주문화예술교육 성과공유 팝업>을 개최한다.

금정문화재단

- **부산 금정인 삶 담다...서동예술창작공간 협업사진전(11.18)**

부산 금정문화재단(이사장 김재운)은 11월 22일부터 12월 3일까지 서동예술창작공간 1층 작은갤러리에서 시각예술가 협업사진전 '금정인'을 무료로 개최했다.

- **금정문화재단, 서동예술창작공간 '서동 미로 시장 문화 장날' 개최(12.1)**

재단은 12월 3일(토)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서동예술창작공간에서 2022 문화가 있는 날 <금정예술마실 문화로 막 끌리네> 5회차 행사 '서동미로시장 문화장날'을 개최했다.

부산문화재단
부산문화재단
BUSAN CULTURAL FOUNDATION

문화정책 이슈페이퍼

19호

2022.11. - 12.



9 772713 411008
ISSN 2713-4113

부산문화재단
BUSAN CULTURAL FOUNDATION

발행일 2022.12.16. 발행인 이미연 발행처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84-1(감만동) TEL051-745-7205~8
www.bscf.or.kr 편집위원 김경화 서승우 송교성 이지훈 편집기획 조정윤 김수정 디자인 제작 스토리진
필진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